

옛 광주 교도소 '5·18 암매장' 사실이었다

사건사고로 되돌아 본 광주·전남 2022

4 5·18 행불자 신원 확인

27일로 출범 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신원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핵심 과제인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지 확인에 대한 단초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견된 261명의 유골 유전자를 용역업체에 분석 의뢰했는데, 지난 9월 업체로부터 1구의 시신이 5·18 행방불명자 염경선씨의 유가족과 유전자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새로 도입한 유전자 조사 방식인 'SNP' (단일 염기 다형성) 조사를 통해 염씨

진상조사위, 새 조사 방식 통해 무연고자 261명 중 1명 밝혀내 암매장·행불자 추적 속도 낼 듯

의 신원을 확인했다. 부계·모계·형제뿐 아니라 사촌의 유전자까지 대조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조사 방식이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5·18 행방불명자 염경선씨의 신원을 파악함에 따라 그동안 증언으로만 남았던 '5·18 암매장' 설과 오리무중이었던 행불자 추적 작업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진상조사위는 26일 전남대 5·18연구소와 유전자 검사 용역업체로부터 염경선씨의 'STR' (짧은 반복서열) 방식 유전자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서면 용

역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증을 기하기 위해 아직 염씨의 유전자 조사와 관련한 최종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받은 'SNP' (단일 염기 다형성) 조사 결과와 전남대 5·18연구소와 유전자검사 용역업체의 STR 조사 결과를 수정·보완한 뒤 내년 2월 중순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결과는 5·18 당시 계엄군이 5·18 희생자들을 암매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를 마련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행불자들이 집단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암매장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광주시가 인정한 5·18 행불자는 총 85명이며, 진상조사위는 행불자 유가족 유전자 정보를 통해 행불자를 찾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의 조사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든 5·18행불자를 찾아야 한다는 지역민의 염원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활동 기간 1년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불자 찾기 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위가 수행한 21개 직권조사 과제는 진척도가 58%에 불과하며, 특히 암매장 소재 및 유해발굴·신원확인 작업의 진척도는 3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5·18 관계자와 유관 단체는 진상조사위의 성과를 이어받아 진상 규명을 이어갈 체비를 하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염씨 유전자 분석을 비롯해 지난 3년 동안 진상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큰 성과를 이뤘다"며 "그간 미진한 조사 내용을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처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재단을 비롯한 유관 단체 및 기관의 몫이다"며 "5·18 진실을 밝혀낸다는 역사적, 사회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교서부터 물 절약을" 전남교육청, 실천방안 전파

전남교육청이 심각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다각적인 물 절약 방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전파했다.

이 방안에는 물 절약 관련 교육, 홍보문 게시 및 방송, 절수 시설·설비, 빗물 또는 지하수 저류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쉬는 시간이나 조회·종례 시간을 활용한 방송 교육, 생활 속 물 절약 가이드라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 자체 물 절약 홍보를 위한 공모전 개최, 학생자치회 주관 홍보 캠페인 등도 권장했다.

이와 함께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 저류조와 지하수 저류조 설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물 절약하는 습관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해 실질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절수 설비나 저류조 설치 등을 통해 가뭄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6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굴욕 외교'를 규탄하고 있다.

광주 사립학교 법인 68%, 친족 교직원 미공개

68개교 중 22개교만 공개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지난해부터 의무화 된 '친족 교직원 공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단체가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만이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근무 여부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46개 학교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법인은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답한 학교는 20개교로 무려 90.9%에 달했으며 친족 교직원 수는 모두 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맡게는 8층,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이다.

친족 교직원 근무 인원 수는 '송원고'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원여고 6명, 광주숭일고 5명, 광일고 4명 등 순이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청은 친족 교직원 미공개 학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일 강제동원 피해자 뜻 배제한 '대위변제안' 규탄"

시민모임 "일본 기업 사죄·배상 면책시켜주는 것"

한일 외교당국이 26일 일본에서 일제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력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26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과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대위변제 해결방안은 피해자들의 의사는 배제한 일방적인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위변제'안을 유력안으로 삼고 있다는 설문을 들었다"면서 "이는 가해자인 일본이나 일본기업의 사죄나 배상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다"고 비판했다.

대위변제 방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지원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다른 국내의 민간업체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인 지원재단이 지난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목적 사업에 '피해자 보상 및 변제'를 추가했고, 행안부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며 "한국기업들에게 기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체권을 소멸시키고 강제징용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 공탁서 등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유력안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일이다"면서 "한국 정부가 위 유력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

광주 서구,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치평동·서창동·유덕동 대상

광주시 서구는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등 3개 동에서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상금은 2022년 한 해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지급되며, 전주기 소음평가 단위인 웨클(WECPL) 값이 높게 측정될수록 금액이 높아진다.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에는 월 6만원을 지급하며 2종(90-94웨클)은 월 4만 5000원, 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소음 중수, 감액기준, 거주기간을 종합해 산출하며, 전일일차 및 직장 등 근무지 이력

거리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접수는 치평동 주민은 5·18 교육관, 서창동은 행정복지센터, 유덕동은 덕흥마을회관에서 할 수 있다. 타 자치구 직장인 등을 위해 광주시 서구 농성동 거승빌딩 5층 군소음보상팀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 (<http://kmnoise.samwooanc.com>), 군 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5월 말까지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통보하며, 8월 말까지 개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에 합산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연재 기자 yjyou@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 범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악학부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